

중국유학생들의 한국어능력과 시간제근로와의 관계 분석

최진숙
(영산대학교)

Choi, Jin-Sook. (2015). An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hinese students' Korean skills and their part-time work.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23(2), 115-131. This study investig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Chinese students' Korean skills and their part-time work. It was a question whether the international students' part-time work would be helpful for improving their Korean skills or not, because of a belief that putting hours in working can shorten the length of time for studying Korean language. In order to find the answer to the question, the questionnaire survey and in-depth (face-to-face) interviews were carried out with 102 Chinese students. As a result, a part-time work appeared as an important factor in determining their Korean skills: part-time working students had higher Korean skills and showed better improvement than the non part-time students. In addition, attitudes towards Korean language and Korean people were closely related to the part-time work: the part-time working group showed more positive attitudes, compared to the group which had no part-time job. These results imply that, whatever the quality of their work, the Chinese students' working experience in Korea can play a role in improving their Korean skills and forming a positive attitude to Korean language and people.

주제어(Key Words): 중국인학생(Chinese students), 한국어능력(Korean skills), 시간제근로(part-time work)

I. 연구배경과 목적

국내에 유학 비자를 가지고 체류 중인 외국인 유학생 숫자는 2000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2년 이후부터는 다소 감소 추세에 있다. 외국인 유학생의 국적은 2014년의

경우 중국이 전체 유학생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베트남, 몽골, 일본 순으로 이어진다.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유학생들이 지방대학보다는 서울에 있는 대학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방대학의 유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현재 많은 지방대학들이 보다 적극적인 외국인 유학생 유치활동을 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대의 경우 한국어능력을 평가하는 공인시험인 토픽점수를 획득하지 않고도 각 대학이 별도로 마련한 한국어 평가제도를 거쳐 대학의 학부과정으로의 입학울 허용하기도 한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한국어능력이 낮은 유학생들이 전공과정을 거치면서 수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결국 이러한 상황들은 유학생들의 학업부진과 대학의 교육부실화의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김소연, 2014, 민진영, 2014).

이처럼 한국어능력부족으로 수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많은 유학생들은 시간제근로를 하고 있다(백성희, 2013). 물론, 유학생들이 반드시 한국어 공부만을 위해 유학을 오는 것은 아니다. 한국기업으로의 취업 기회, 한류열풍, 다른 영어권 국가보다 비교적 값싼 등록금, 공부하면서 시간제근로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한국어와 한국어 문화에 매력을 느껴 한국에 있는 대학으로 오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김 지훈 & 이 민경, 2011). 이렇듯 유학의 동기는 다양할 수 있지만, 대학들은 입학한 유학생들의 한국어능력을 향상시켜 성공적인 유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은 교육 내실화를 위해, 그리고 수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학생들의 한국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한국어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문제는 시간제근로 학생들은 이러한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유학생들을 담당하고 있는 지도교수들은 외부에서의 시간제근로가 공부할 시간을 부족하게 하여 학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식하기도 한다. 따라서 한국어능력이 부족하거나 학업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학생들에게 학점이수를 위해 시간제근로보다는 공부에 전념하도록 지도해야 하지만, 시간제근로를 통해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유학생들에게는 이러한 지도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오히려 시간제근로가 한국어유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한국어 능력에 어떤 요인으로 작용하는지 그 관계를 연구 분석하여 유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일 수 있다.

본 연구는 중국유학생들과의 심층면담과 설문지조사를 통해 한국어능력을 평가하고 그들의 한국어와 한국인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여 시간제근로를 하는 학생들과 하지 않는 학생들의 결과가 어떻게 다른지 분석하고자 한다. 기존의 많은 연구들이 대부분 유학생들의 만족도나 대학생활 적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본 연구는 유학생들의 학업목적인 한국어능력과 사회적 요인인 시간제근로와의 관계를 분석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시간제근로를 하는 유학생들을 지도하는 각 대학의 상담자들에게 유용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특정언어 환경에서 특정언어를 학습하면서 시간제근로를 하는 것이 특정언어능력 향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학문적 접근도 가능할 것이다.

II. 외국어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1. 특정언어와 특정 언어 사용자에 대한 태도

그동안 외국어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연구는 꾸준히 발표되어왔다(최진숙, 2007, 2008; Choi, 2001; Gardner, 1985; Knuber & Brandsma, 1993; Tremblay, Goldberg, & Gardner, 1995). 이렇듯 많은 연구에서 특정 외국어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학습자의 언어정체성, 조기 학습, 학습교실환경, 교사, 언어프로그램, 선천적 언어능력 등)이 논의되었지만, 특정언어능력향상에는 그 언어에 대한 태도가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Gardner(1985)의 연구에 세부적이고 논리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Gardner(1985)는 특정언어에 대한 태도가 그 언어의 유창성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했고, 학습하고 있는 언어에 대해 좋은 느낌 및 감정,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그 언어의 학습효과도 높다는 연구결과를 강조해 왔다. Gardner(1985)의 연구결과는 Knuber과 Brandsma (1993)의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다. 이 연구자들은 학습 시작 전에 조사한 학생들의 태도가 언어학습 성취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의 연구대상자인 212명은 독일어학습 시작 전 조사된 독일어에 대한 태도에 따라 독일어 능력이 많이 다르게 나타났다. 처음 학습 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연구대상자들에게서 독일어의 학습 성취도가 높게 나타났고 반대로 처음에 부정적인태도를 가졌던 연구대상자들은 독일어의 학습 성취도가 아주 낮게 나왔다. Tremblay, Goldberg & Gardner(1995)의 연구결과 또한 이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었는데, 그들의 연구에서 히브리어에 대한 좋은 태도를 보인 연구대상자들은 히브리어능력이 월등했고 히브리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그 언어를 배우고자 하는 의욕도 크게 높았지만, 히브리어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연구대상자들은 히브리어에 관심도 없고 호감도도 낮았다.

나아가, 대학생들을 연구대상자로 진행된 연구에서도 언어에 대한 태도가 언어능력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최진숙(2002) 연구에서, 영어능력이 낮은 대학생 137명에게 언어태도설문지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그 결과 그들은 대부분 영어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낮았으며, 학습의욕 또한 낮게 나타났으며, 따라서 영어의 학습 성취도도 현저히 낮음이 확인되었다. 일반적으로 특정한 언어에 대해 좋은 태도를 가지면 그 언어능력 또한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특정한 언어에 대한 호감이나 관심은 그 언어의 편견이나 불인함을 줄여주어 그 언어를 사용하는 그룹의 문화를 잘 받아들일 뿐 아니라, 학습을 할 때도 즐거움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학습효과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특정한 언어에 대한 호감이나 관심은 이미 그 언어에 대한 지식이나 그 언어와의 경험에 의해 익숙해져 있으면 생기는 심리적 상태이다(최진숙, 2002). 따라서 특정한 언어에 대해 좋은 태도를 보이는 학생은 그 언어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 경험을 가지고 있기 쉽기 때문에 이미 그 언어에 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특정한 언어로의 태도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용자와의 태도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Appel & Muysken(1987)은 일반적으로 다른 특정한 그룹의 언어를 좋아하게 되면, 그 그룹구성원에게도 호감도가 상승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특정한 언어에 대한 태도와 그 언어그룹 구성원들에 대한 태도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이 두 태도들은 분리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 이유는 특정 그룹의 언어를 포함한 문화나 패턴이 그 그룹 구성원 개인에 대한 태도에 반영되기 때문이라고 한다(Choi, 2001). 따라서 일반적으로 특정한 언어에 대해 호감도가 높으면 그 특정한 언어의 사용자에 대해서도 호감도가 높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2. 특정언어로의 노출 형태와 노출 경험

특정언어로의 노출도가 높을수록 그 언어의 유창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Choi(2001)의 연구에서 검증되었다. 그리고 특정언어로의 노출형태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여러 가지 노출 형태 중에서 가장 확실한 노출형태는 목표언어의 현지 원어민들과의 직접적인 접촉이라고 한다(Choi, 2001). 그 이유는 목표언어 사용자와의 직접적인 상호교류는 언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장 큰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를 지지해주는 연구가 Cenoz 외(1999)에 의해 발표되었다. 그들의 연구에서 86명의 바스크어(Basque)와 스페인어의 모국어 사용자들이 영어 학습을 하였는데, 그 결과 영어발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바로 원어민과의 직접적인 접촉이었다. 그러나 원어민 친구를 만든다든가 원어민과 함께 거주하는 등의 원어민과의 접촉은 학습자의 의지가 많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 연구자들은 특정언어를 향상시키고 싶다면 특정한 언어를 사용하는 집단으로의 여행이나 방문을 자주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Cummins & Swain(1986) 또한 외국어를 습득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언어를 직접 사용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 특정 언어의 사용이야말로 그 언어로 노출되어 있는 것이며, 다른 어떤 요인들(모국어 능력, 학업성적, 성격, 성별 등)보다 특정언어를 직접 사용하는 것이 언어능력 향상에 가장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의식적인(cognitive)과정과 행동적인 상호관계(behavioral interaction)에 의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이고, 이런 형태야말로 특정언어에 가장 명확히 노출되는 상태라고 한다. 나아가 이들 연구자들은 특정언어집단에 직접 거주하는 것도 특정언어 향상에 좋은 요인으로 보았다. Bettoni(1989)는 평소에 특정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그 특정언어로의 가장 좋은 노출형태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Cummins & Swain(1986)의 결과를 지지했다. 나아가 Gardner(1985)는 특별 언어과정을 이수하는 것이 목표언어능력을 가장 확실하게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즉, 효과적인 언어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프로그램에 학습자가 참여

하는 것이 다른 노출형태보다 가장 강력한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Sohrabi(1997) 연구에서는 특정언어의 대중매체에 접하는 것도 특정언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노출의 형태이고, 따라서 특정언어의 대중매체에 자주 접하라고 제안하고 있다.

위의 연구들에 따르면, 특정언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특정언어로의 노출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으로 공부하러 온 외국인유학생들의 경우도 한국어로의 노출형태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우선 학습하고자 하는 목표언어의 나라, 즉 한국에 와있다는 것 자체가 노출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며, 한국인 친구 및 한국인들과 함께 한국어로 말하는 것도 바람직한 노출 형태일 것이다. 나이가 유학생들이 시간제근로로 인해 한국인과 접해 있다면 이 또한 분명 목표언어와 목표언어사용자로서의 노출 형태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목표언어의 나라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원어민과의 접촉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나라 문화와의 접촉도 가능해진다. 그러나 시간제 근로를 하지 않는 유학생들의 경우는 한국어로의 노출 형태가 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규과목 시간외에 한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어수업에 참여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 사립학원에서 한국어수업을 받을 수 있다. 한국친구를 만들어 함께 여행을 가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좋은 노출방법이며, 대학에서 지원하고 있는 한국인학생 튜터와 1:1로 한국어학습을 함으로써 한국어 및 한국인으로서의 노출도를 높일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노출형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 학습방법을 찾는다면 교재로 혼자 스스로 학습할 수 있고, TV등 대중 매체를 이용하여 한국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러나 Gardner(1985)는 노출의 경험과 그 질이 언어능력에 영향을 준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의 연구에서 특정언어로의 노출 경험이 부정적이었던 학생은 언어능력향상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반면에 경험에 의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학생들은 언어능력이 크게 향상되었다. 현재 한국에 공부하러 온 유학생들의 시간제근로를 통한 한국어로의 노출의 형태와 관련하여 보고된 연구는 많다(신선희 & 유문부, 2014; 표태준, 2014; 풍정, 2009). 합법적으로 일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시간제 근로의 형태를 살펴보면, 그들 대부분은 대학가 주변 식당에서 서빙을 하거나 청소, 아니면 야간시간에 공장에서 단순 노동일을 하고 있었다(풍정, 2009). 유학생 시간제근로와 관련하여 한국인들의 임금착취도 일어나고 있어, 오히려 유학생들의 반한 감정을 키운다는 보고도 있다(표태준, 2014). 또한 최근 발표된 연구에서 시간제근로의 경험에 대한 유학생들의 대답은 대부분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인의 중국인에 대한 태도는 차별과 무시였고, 중국 상품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중국유학생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표태준, 2014). 나아가 백성희(2013) 연구에서는, 한국에 온 유학생들은 한국인 친구보다는 외국인학생들과 접촉 빈도가 더 높다고 나타났다. 유학생들은 한국의 원어민보다 유학 온 같은 외국인들끼리 더 친밀감을 느끼고 한국에서의 활동도 외국인끼리 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되었다. 이처럼, 한국에 와 있어도 한국어 및 한국인과 접촉하려고 하기 보다는 정서적으로 편한 다른 나라의 외국인을 만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시간제근로는 중국유학생들의 노출도를 높여 한국인과의 접촉의 기회를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시간제 근로를 통한 경험은 부정적인 태도를 형성시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목표언어로의 노출경험이 언어능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한다면, 시간제 근로유학생들이 긍정적인 근로경험을 갖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특정언어로의 노출이 될 경우, 다양한 문화경험을 통해 특정언어의 문화를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Stagich, 1998). 특정언어로의 접촉에서 처음에 생기는 편견과 두려움은 그 언어의 문화이해로 인해 사라졌으며, 문화이해로 언어능력이 향상되었음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Mantle-Bromley, 1995).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시간제근로의 형태와 질을 알아보고, 한국어능력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참여한 연구대상자는 현재 지방 사립대 Y대학에서 비즈니스를 전공하고 있는 중국인 유학생 102명이다(남학생 58명, 여학생 44명). 이들 연구대상자 중 46명이 지난 6개월 동안 시간제근로를 해왔고, 56명은 시간제근로를 하지 않았다. 본 연구대상자들은 연구자의 멘토링(mentoring) 수업을 신청한 멘티(mentee) 학생들로서, 한국에 유학 와서 거주한 기간은 평균 2년 정도이며, 거주형태는 대부분 대학근처에서 같은 중국유학생들과 함께 살거나 혼자 자취하고 있다.

2. 설문지조사

질적 조사인 심층면담 전에 양적조사인 설문지조사가 교실에서 단체로 진행되었다. 설문지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개인의 사회적 배경, 한국어로의 노출기간과 노출형태, 그리고 한국어와 한국인에 대한 태도 등이 설문지에 포함되어 있다.

표 1. 설문지의 질문내용

번호	설문지 내용
1	이름 및 성별
2	현재 토픽점수
3	생년월일 및 현재 나이
4	태어난 곳(출신국가)
5	가족관계(부모/형제)
6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는지요? 기숙사에서()혼자 자취()친구들과 자취()하숙()기타()
7	한국에 온지 얼마나 되었는지요(거주기간)? 1)1년 이상 2)2년 이상 3)3년 이상 4)4년 이상 5)5년 이상
8	한국어(또는 한국어를 배우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1)아주 좋다 2)좋다 3)보통이다 4)싫다 5)아주 싫다
9	한국인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요? 1)아주 좋다 2)좋다 3)보통이다 4)싫다 5)아주 싫다
10	한국으로 유학을 온 이유(동기)는 무엇인지요? 1)일하기 위해(돈 벌기 위해) 2)한국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3)한국이 좋아서 4)한국회사에 취업하고 싶어서 5)특별한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6)친구 및 선생님이 추천해서 7)기타, 다른 동기가 있다면
11	지난 6개월 동안 아르바이트(시간제근로)를 해왔나요? 1)아르바이트를 해왔다 2)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았다
12	현재 한국친구가 있습니까? 1)있다 2)없다

3. 심층면담

본 연구의 질적 연구방법으로는 심층면담을 선택했다. 설문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진행하는 심층면담을 선택한 이유는, 일반적인 양적 연구방법은 연구대상자가 외국인학생이기 때문에 설문지의 질문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으며, 따라서 데이터의 객관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심층 면담은 질적 연구방법에서 많이 쓰이는 형태로서 양적연구에서 얻기 힘든 답을 쉽게 얻을 수 있다. 즉, 응답자가 왜 그런 답변을 하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이유까지 알아 낼 수 있을 뿐 아니라, 응답자의 비언어적 반응까지도 연구자가 관찰할 수 있고, 개개인에 맞추어 질문을 할 수 있어 결과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심층면담 방법은 일반적으로 적은 수의 표본을 이용하기 때문에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 표본으로서 상대적으로 많다고 할 수 있는 102명의 면담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였다. 면담 시는 설문지의 질문내용을 토대로 질문을 하고 면담을 하였다. 이는 면담질문의 내용과 설문지 내용의 일관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며, 이렇게 함으로써 본 연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4. 한국어 능력 평가

연구 참여자들의 한국어 능력은 심층면담을 통해 듣기 및 말하기를 위주로 평가되었다. 한국어능력은 아래와 같이 세 등급으로 나누었으며, 그 평가기준은 아래와 같다.

표 2. 한국어 능력 평가 기준

점수	평가기준
5점(4.00점~5.00점):우수	-모든 질문에 큰 어려움 없이 유연하게 대답한다. -자유롭게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정확한 문장을 사용하며 표현할 수 있다.
4점(3.00점~4.00점):보통	-간단한 질문에는 기본적으로 답할 수 있다. 그러나 복잡한 문장이나 긴 문장을 표현하는데 실수를 가끔씩 보이며 한계를 느낀다.
3점(2.00점~3.00점):미흡	-간단한 인사는 서로 주고받는다, 그러나 다른 간단한 질문에는 답하기 어려워한다. -몇 개의 단어만 사용할 수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두 그룹의 한국어능력 차이를 알기 위한 것이며, 따라서 한국어 능력 평가는 연구대상자들의 한국어능력을 범주화(categorizing)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복잡한 평가 시스템은 불필요하며, 오히려 간단한 등급시스템(scoring system)이 평가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Underhill, 1987). 평가는 연구자의 임프레션마킹(impression marking)으로 진행되었다. 평가자의 느낌이나 판단으로 채점되는 임프레션마킹(impression marking)은 말하기 평가에서 흔히 쓰이는 방법으로서, 평가자의 신중하고 정확한 판단만 확보된다면, 이 평가 방법은 실제의 언어능력을 가장 직접적이고 확실하게 평가에 잘 반영시킬 수 있다(Underhill, 1987). 그러나 주관적인 평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연구자는 연구대상자의 평가가 이루어진 직후, 연구대상자의 한국어능력시험인 토픽 점수를 참고하여(토픽점수가 있는 경우) 비교해봄으로써, 평가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었다. 심

층면담을 통한 한국어능력 평가는 연구대상자들의 한국어능력 향상을 측정하기 위해 3월과 9월, 일 년에 두 번 진행되었다.

IV. 결과 및 논의

1. 두 그룹의 한국어능력 평가결과

본 연구의 설문지조사와 심층면담에 참여한 시간제근로유학생(이하 'PTS')과 시간제근로를 하지 않는 유학생(이하 'NPTS')의 한국어 능력평가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3. 두 그룹의 한국어능력 평가 결과(N=102)

	PTS(N=46)		NPTS(N=56)	
	1차	2차	1차	2차
5점	10명	18명	11명	11명
4점	14명	15명	18명	20명
3점	22명	13명	27명	25명
평균(M)	3.74	4.11	3.71	3.75

3: 미흡 4: 보통 5: 우수

위의 표.3 에서 볼 수 있듯이, 1차 한국어능력평가 결과에서 두 그룹의 평균은 거의 차이가 없었다(PTS: 3.74, NPTS: 3.71). 그러나 2차 한국어능력평가에서는 두 그룹의 평균차이가 현저히 나타났다(PTS: 4.11, NPTS: 3.75:). 즉, 1차 평가에서 PTS그룹이 NPTS그룹보다 0.03 정도 더 높았으나, 2차 결과에서는 무려 0.36이 더 높았다. 나아가 PTS그룹의 평균 상승 차이(4.11-3.74=0.37)는 NPTS의 평균상승(3.75-3.71=0.04)보다 무려 0.33이 높았다. 주목할 만한 결과는, 2차 평가 결과에서 PTS 그룹에서는 가장 많은 학생들이 가장 높은 점수인 5점으로 평가된 반면, NPTS 그룹에서는 가장 많은 학생들이 가장 낮은 점수인 3점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두 차례(3월/9월) 시행된 연구대상자들의 한국어능력평가결과를 종합해 보면, 시간제근로를 하는 학생들이 하지 않는 학생들보다 한국어능력이 더 높게 나타났고, 한국어능력의 향상도 더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 주의해서 파악할 결과는, NPTS 그룹의 한국어능력이 전혀 향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표 3.의 결과들을 보면, 두 번의 평가에서 5점 그룹은 11명으로 변함이 없었으며, 전체 평균 향상도 0.04에 그치고 말았다. 이렇게 한국어능력이 향상되지 않은 이유는 아래 심층면담결과에서 논의할 것이다.

2. 설문지 조사 결과

1) 두 그룹의 한국어에 대한 태도와 한국인에 대한 느낌

다음은 위의 결과를 지지해 줄 수 있는, 한국어 능력과 관계있는 한국어에 대한 태도와 관련하여 나타난 통계결과를 먼저 살펴보자. 두 그룹의 설문지조사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4. 한국어(또는 한국어를 배우는 것)에 대한 태도

	PTS(N=46)	NPTS(N=56)
5점	4.57	3.50
4점	4.00	3.89
3점	3.83	3.30
평균(M)	4.13	3.56

1: 아주 싫다 5: 아주 좋다

놀랍게도, 표 4.에서 PTS그룹은 한국어에 대한 태도에 점수별 정확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즉, 한국어 능력이 뛰어난 학생일수록 한국어를 배우는 것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NPTS그룹은 4점에서 가장 긍정적인 점수가 나왔고, 따라서 일정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태도가 좋을수록 특정 언어에 대한 능력이 향상된다는 위의 선행연구 결과를 주목한다면, PTS그룹은 그것을 정확히 증명해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시간제 근로하는 유학생들과(M=4.13) 그렇지 않은 학생들과(M=3.56)의 태도에 대한 평균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결과 또한 시간제 근로하는 연구대상자들이 하지 않는 대상자들보다 한국어능력이 더 높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어, 위의 한국어능력 평가 결과와 일관성을 보이고 있다.

선행연구에서 논의되었듯이, 특정언어의 능력과 그 언어 사용자에 대한 태도 또한 깊은 관계가 있음을 알고 있다. 그렇다면 본 연구의 참여자들에게는 특정언어, 즉 한국어에 대한 태도와 그 특정 언어 사용자, 한국인에 대한 태도 사이에 어떤 관계를 나타냈는지 살펴보자.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5. 한국인에 대한 느낌

	PTS(N=46)	NPTS(N=56)
5점	4.14	3.67
4점	4.08	3.78
3점	4.01	3.90
M	4.08	3.78

5: 아주 좋다 1: 아주 싫다

표 5 또한 재미있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즉, 시간제근로 유학생들은 점수가 좋을수록 느낌이 좋고(4.14-4.08-4.01), 역으로, 일하지 않는 학생들은 한국어 능력이 낮을수록 느낌이 좋게 나왔다(3.67-3.78-3.90). 이렇게 일정한 패턴을 보여주는 것은 한국어능력이 높으면 한국인에 대해 긍정적이며 호감적일 수 있고, 한국어 능력이 낮으면 한국인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결과를 보면, 한국어에 대한 느낌이 시간제 근로를 하는 학생들이 하지 않는 학생들보다 더 좋을 수 있으며, 따라서 시간제근로 학생들이 한국어능력이 더 뛰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암시해주고 있다.

설문지조사 결과를 요약해보면, 시간제 근로를 하는 학생들이 한국어에 대한 태도(4.13 vs 3.56)는 물론 한국인에 대한 느낌(4.08 vs 3.78)도 시간제 일을 하지 않는 학생들보다 모두 더 높게 나왔으며, 두 문항, 한국어에 대한 태도 및 한국인에 대한 느낌에 대한 결과가 위의 한국어능력평가 결과와 일관성을 보이고 있어, 중국유학생들의 한국에서의 시간제근로는 한국어능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가능성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일대일(1:1)의 심층면담 결과를 이제 논의해보자.

2. 심층면담조사 결과

1) 두 그룹의 한국어 능력

본 연구의 초입에서 부족한 한국어능력으로 유학생들이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되었고, 그러한 보고의 내용은 본 연구의 심층면담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멘토인 연구자와 멘티인 연구대상자가 일대일 심층면담을 통해 나타난 결과는 연구대상자 대부분이 연구자와 대화할 때 한국어 표현에 많은 어려움을 보였다라는 것이다. 모든 질문에 큰 어려움 없이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학생들은 많지 않았으며, 간단한 인사를 나눈 후, 연구자와 몇 개의 단어만을 사용하여 면담이 진행된 학생들도 많았다.

실제, 그들이 얼마나 한국어를 어려워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여러 가지 질문들이 진행되었다. 먼저 학교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일은 무엇인지 질문했을 때, 대부분의 연구대상자들은, “한국어가 가장 어렵다”, “한국어로 진행되는 일반 전공과목은 이해하기 어렵다”, “듣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데, 한국어로 표현하기가 어렵다” 등으로 대답함으로써, 학교생활의 가장 어렵고 힘든 부분이 모두 한국어와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사실 낯선 나라로 유학을 오면, 거주문제, 친구문제, 경제문제, 음식문제 등 다른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연구자는 추측했지만, 심층면담에 참여한 연구대상자들 대부분이 한국어습득 및 한국어 능력과 관련된 어려움이 가장 힘든 일이라고 일관되게 답하여 조금 놀라웠다. 그러나 모든 연구대상자들에게 학교수업은 어려운지 쉬운지 물어보았을 때, 대부분의 연구대상자들은 교수님들의 수업은 보통정도 이해한다고 답했으며, 수업에는 큰 어려움이 없고 따라

서 학교생활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그렇다면 한국어 능력과 관련하여 PTS그룹의 연구대상자들은 NPTS의 그들과 무엇이 다른지 분석해보았다. 먼저 PTS그룹과 NPTS 그룹의 차이점은 질문을 확인하는 능력이었는 데, PTS의 연구대상자들은 연구자의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면 다시 질문하여 확인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예를 들어, “한국에 언제 왔나요?”라는 질문에 이해가 되지 않거나 알아듣지 못했을 경우, “예? 한국에 언제 왔나구요?”라고 확인 한 후, “2012년이요”라고 대답하는 형식이었다. 또한 PTS 그룹에서는 “예”와 “아니오”와 같은 단답형의 대답은 많지 않았고, 어떠한 질문이라도 일단 대답을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NPTS그룹의 대부분 대답은 “예”와 “아니오”같은 단답형이 주를 이루었다. 또한 NPTS 그룹은, “한국에 언제 왔나요?”라고 연구자가 질문하면, 질문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알아듣지 못했어도 “예” 라고 답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경우, 연구자는 다시 질문을 하였다. “언.제. 한국에 왔는지요?” 또는 “중국에서 한국.으로 언제 왔나요?”라고 내용을 더 구체화하여 질문하면, 질문을 이해했을 경우, “아, 음, 음, 2012년이요”와 같은 형식으로 대답하였다. NPTS그룹의 또 다른 예를 들면, “가장 좋아 하는 과목은 무엇인지요?”라고 질문할 경우, “아...” 하고 머뭇거리면, 연구자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과목을 제시해주기도 한다. 즉, “무역학 개론? 무역영어? 마케팅?”으로 질문하면 “네, 마케팅”하고 대답하는 식의 질문과 대답이 서로 오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NPTS그룹의 또 하나의 특징은 연구자가 질문을 했을 때 이해가 되지 않거나 대답하기 어려우면 침묵하는 학생들이 많았다.

나아가 한국어가 얼마나 어려운지 묻는 질문에, PTS그룹의 대다수(46명 중 30명 이상) 연구대상자들이 “한국어는 크게 어렵지 않다” 또는 “한국어는 보통으로 어렵다” 또는 “괜찮다”라고 대답했다. 반면에 NPTS그룹의 대부분(56명 중 50명)은 “너무 어렵다”, 또는 “힘들다”라고 답했다. 심층면담 결과 또 하나 주목할 내용은, PTS그룹의 대부분 연구대상자들은 성격이 밝고 적극적이고 활발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반면에 NPTS그룹은 대부분 소극적이고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향의 태도를 보였다. 만약 NPTS그룹의 이러한 태도가 한국어 능력과 한국어학습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면, 언어학습의 두려움과 언어능력은 서로 깊은 관계가 있다는 연구(Choi, 2001)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언어에 대한 두려움은 그 언어로의 노출도를 높이면 낮아진다는 결과였으며, 따라서 NPTS그룹에게 노출도를 높인다면 현재 보여준 태도는 변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심층면담을 통해서도 두 그룹의 한국어 능력에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PTS그룹의 연구대상자들이 NPTS그룹보다 한국어 능력이 더 높았을 뿐 아니라, 더 적극적이고 많은 말을 하려고 노력했고, 밝고 외향적이며 활발한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에서 시간제 일을 경험한 유학생들이 경험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한국어 구사능력이 높다는 임석준(2010)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고 있다.

2) 두 그룹의 노출 형태와 한국인에 대한 태도

지금까지 PTS그룹이 상대적으로 높은 한국어능력을 보여주었고, 한국어에 대한 태도도 상대적으로 긍정적이었다면, NPTS보다 한국어 및 한국인으로의 노출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일반적으로 한국어와 한국인에 대한 태도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할 수 있는데, 특정한 언어와 그 언어 사용자에 대한 태도에는 노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Choi, 2001). 그러나 노출의 양보다는 노출의 질이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Gardner, 1985), 사실도 우리는 알고 있다. 심층면담을 통해 나타난 두 그룹의 노출형태와 노출의 질은 다음과 같다.

먼저 PTS그룹은 시간제 근로를 하면서 원어민인 한국인에게 노출되기 때문에 그들이 한국인들과 어떤 경험을 했느냐가 한국인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PTS의 시간제근로의 형태를 분석해보니, 그들이 일하고 있는 근로 형태는 46명 대부분 주방에서 주방보조, 식당에서 서빙 및 그릇 닦기, 공장에서의 단순노동 및 생산직이었다. 또한 시간제 근로 직장에서 시간제근로학생들에게 일을 시키는 책임자들이 유학생들에게 어떻게 대해 주는지 물어보았을 때, 따뜻하고 친절하게 대해주는 책임자들도 있었지만, 그들의 책임자들은 본인에게 큰 관심을 보여주지 않았으며 나아가 좋은 대우를 해주거나 유학생으로서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대답한 연구대상자들도 있었다. 한 연구대상자는 “어느 그룹(곳)에서나 친절할 사람들이 있고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도 같아요”라고 깊이 있는 답을 주기도 했다. 그러나 중국 유학생들이 매우 실리적으로 움직인다는 것도 심층면담을 통해 나타났다. 예를 들어, 시간제 근로 유학생들을 무시하고 불친절하게 대해도 대부분의 연구대상자들은 그래도 보수만 더 좋게 준다면, 그 어떤 대우도 괜찮다고 답했다. 또한 시간제근로에서 한국인들이 유학생들에게 잘 대해주는 것은 아니었지만,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한국인에게 감사함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다면 시간제근로를 하지 않는 NPTS 그룹의 노출형태는 어떠한지 심층면담을 통해 분석해보았다. 먼저 NPTS그룹의 가장 큰 문제는 한국인과의 접촉이 매우 적다는 것이다. 한국에 와서 한국인을 만나 직접 이야기할 수 있는 상대자는 교수님들이 유일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다. 수업시간에도 같은 중국인끼리 앉아 공부하고, 수업 후에도 같은 중국인끼리 식사하고 운동하고 수업준비를 한다. 나아가 이들 NPTS그룹은 생활비를 절약하기 위해 같은 중국유학생들끼리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주말에도 중국유학생들끼리 모여 운동하거나 쇼핑을 함께하고 부산 가까운 곳에 여행을 했다. 심지어 절반정도의 학생들에게 이성친구가 있었는데, 이성 친구마저도 모두 같은 중국인 유학생들이었다. 한국에 왔으니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서라도 한국인 친구를 많이 만들라고 연구자는 제안해왔지만, 대부분의 연구대상자들은 한국어능력이 부족해서 한국인 친구를 만나기 어렵다고 대답했다. “한국친구 사귀기 힘들어요”, “한국어 어려워 만날 수 없어요”, “한국인들이 우리가 말할 때 답답해요”, “어

떨 때는 우리가 말할 때 막 웃어요. 그럼 창피해요”, “한국친구들은 우리에게 먼저 말을 해오지 않아요”, “차라리 유학생활을 서로 잘 이해하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학생들과 더 많이 이야기해요” 등의 대답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심층면담을 통해 발견된 것은, NPTS그룹의 근본적인 문제는 한국어로의 노출의 지가 약하다는 것이다. 위의 표 3.에서 NPTS그룹의 한국어능력이 전혀 향상되지 않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노출의지가 약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예를 들어, 한국어를 못해서 한국친구를 만나기 어렵다던 NPTS그룹, 즉 시간제 근로를 하지 않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어능력 향상 프로그램인 특별반을 운영하였지만, 대부분 참여하지 않았다. 또한 한국어 경연대회 및 발표대회, 심지어 MT 등 한국친구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대학에서 제공했지만, NPTS그룹의 학생들의 참여율은 저조했다. 결국 NPTS그룹은 한국어학습에 흥미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한국어공부를 해야겠다는 의지력도 부족해 보였다. 만약 NPTS그룹이 시간제근로를 원한다면 한국어능력 향상이 필요한데, 한국어 및 한국인에 노출되도록 학습의지를 불어넣어 주는 일이 더 중요한 일로 판단된다.

이처럼 NPTS그룹은 한국인 친구 만들기와 한국어학습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한국인에 대해서는 ‘친절하다’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대상자들에게 형성된 한국인에 대한 태도는, 외부에서는 한국인을 많이 만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수업시간에 접하게 되는 강사들에 대한 태도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사실 상대적으로 유학생들의 수가 적은 지방의 대학들은 유학생들의 이탈 율을 막기 위해 유학생들과 정서적인 교류를 통해 친밀감을 형성시키는데 주력하다보니 학생들에게 과잉친절 현상이 생기기도 한다. 이러한 ‘친절한 교육’은 유학생들에게 한국인은(정확히 말하면 ‘한국 선생님들은’) ‘친절하다’는 느낌을 주는 것이다.

본 연구의 심층면담 결과 알 수 있는 것은, PTS그룹이 NPTS그룹보다 한국어와 한국인에 더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다. 같은 시간을 비교해 보았을 때, PTS그룹이 노출되어 있는 시간에 NPTS그룹은 한국어나 한국인에 노출되어 있지 않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단순한 노출의 양을 배제하고 그들의 노출의 질을 비교해보았을 때, PTS그룹이 아무리 그 노동의 질과 한국어 및 한국인으로의 노출의 질이 낮아도 전혀 접촉이 없는 것보다는 낫다는 결론이 나온다. 만약 PTS그룹의 시간제 근로시간에, NPTS그룹이 대학에서 진행되는 한국어 학습능력 강화 프로그램 및 한국어 강의에 참여한다면 더 높은 노출을 가질 수 있고 한국어능력도 더 강화되어 PTS보다 더 높은 한국어 능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V. 요약 및 결론

본 논문의 목적은 현재 많은 외국인유학생들이 시간제근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간제

근로를 하지 않는 학생과 한국어능력이 어떻게 다른지 한국어능력평가, 설문지조사와 심층면담을 통해 분석하는 것이었다. 분석 결과, 시간제근로를 하고 있는 유학생들이 시간제근로를 하고 있지 않는 학생들에 비해 한국어능력이 더 우수하고, 향상도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의 분석 과정에서 한국어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은 한국어에 대한 태도와 한국인에 대한 느낌 또한 보다 긍정적임을 알 수 있었다. 비록 시간제근로학생들의 근로의 질은 좋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제근로를 하지 않는 학생들에 비해 한국어 능력이 높은 이유는, 시간제근로 유학생들이 일을 하는 시간에 시간제근로를 하지 않는 학생들은 한국어에 노출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즉, 두 그룹의 노출도의 차이를 주요요인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 유학생들의 한국어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시간제근로는 최소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의 결과에 따르면, 유학생 상담자들은 한국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오히려 시간제근로를 제안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 유학생들의 수가 감소되어 가고 있는 지방대의 어려운 상황에서, 유학생들이 다른 나라로 눈을 돌리지 않고 한국으로, 특히 지방대학으로 유학 올 수 있도록 하려면 시간제 일을 원하는 학생들에게도, 원하지 않는 학생들에게도 대학은 만족스러운 교육의 질과 경제적 기회를 동시에 제공해주어야 한다. 한국어능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키려면 한국어로의 노출도를 높이고 한국문화를 이해하도록 돕는 것인데, 선행연구에서도 언급했듯이, 노출의 양보다는 노출경험이 중요하다. 한국어로의 노출 경험을 긍정적으로 바꾸려면, 시간제근로를 하는 유학생들에게 작업장에서의 책임자들은 유학생들의 노동을 존중해주고 노동에 대한 공정한 대우를 해줌으로써, 그들 자체가 한국의 문화를 보여주는 것이다. 나아가 대학은 시간제근로 유학생을 포함, 시간제근로를 원하지 않는 학생들에게도, 한국어로의 질 높은 노출로 유도해야 한다. 즉, 지금까지의 구태의연한 주입식 한국어 교육보다 문화콘텐츠가 최대한 포함된 한국어능력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은 물론, 한국인 학생들과 유학생이 함께 할 수 있는 공동프로젝트를 설계하여 한국인과 한국문화를 실제로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그동안 지방대학들이 유학생들을 유치하면서 특별프로그램이라든가 유학생을 위한 별도의 시설 확충에 많은 투자를 한 것은 아니다. 지금은 유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유학생을 위한 시설 재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시점으로 보인다. 이렇게 함으로써 유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나아가 지방대학은 더욱 많은 유학생을 유치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질 것이라 연구자는 믿고 있다.

참고문헌

- 김소연. (2014). 지방대 외국인 유학생 유치 열악, 부익부 빈익빈. *한국대학신문*. 2014. 12. 14.
 김지훈 & 이민경. (2011). 외국인유학생들의 한국유학동기와 경험연구: 서울 A대학 석사과

- 정 학생들의 네러티브를 중심으로. *동아연구*, 30(2), 73-101.
- 민진영. (2014).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어능력부족에 따른 대학원 생활 경험 연구. *다문화교육연구*, 7(2), 159-181.
- 백성희. (2013).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석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 신선희 & 유문부 (2014). 재한 중국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홀리스틱교육학회지*, 18(2), 45-69.
- 임석준. (2010). 외국인 노동자인가 유학생인가? : 부산지역 중국유학생의 노동실태와 사회적 책임. *21세기정치학회보*, 20(3), 55-77.
- 최진숙. (2002). 영어능숙도가 낮은 학습자들의 영어에 대한 태도. *외국어연구*, 17(2), 1-24.
- 최진숙. (2007). 초등단계에 영어조기유학을 하고 귀국한 학생들의 학부모 포커스 그룹 인터뷰. *언어학*, 15(2), 77-98.
- 최진숙. (2008). 대학생들의 국어능력과 영어능력과 관계: 영어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언어학*, 16(2), 27-46.
- 표태준. (2014). 유학생알바 임금 착취 반한감정 키운다. *부산일보*, 2014. 12. 13 (17면).
- 풍정. (2009). *재부산 중국유학생들의 유학생생활의 경제생활에 관한 사회학적 조사 분석*. 석사학위논문. 부산외국어대학교.
- Appel, R. & Muysken, P. (1987). *Language contact and bilingualism*. London: Edward Arnold.
- Bettoni, C. (1989). Language loss Italians in Australia: A summary of current research. *Review of Applied Linguistics*, 83-84. 37-50.
- Cenoz, J., Garcia, L., & Maria, L. (1999). The acquisition of English pronunciation: Learners' view. *International Journal of Applied Linguistics*, 9(1), 3-17.
- Choi, J. S. (2001). The effect of the amount of positive contact with English on desire to learn English and English proficiency. *Foreign Language Studies*, 20. 125-141.
- Cummins, J. & Swain, M. (1986). *Bilingualism in education*. New York: Longman.
- Gardner, R. C. (1985). *Social Psychology and Second Language Learning*, London: Edward Arnold.
- Knuber, A. W. M. & Brandsma, H. P. (1993). Cognitive and affective outcome in school effectiveness research. *School Effectiveness and School Improvement*, 4, 189-204.
- Mantle-Bromly, C. (1995). Positive attitudes and realistic beliefs: Links to proficiency. *Modern Language Journal*, 79(3), 372-386.

- Sohrabi, B. (1997). Ethnolinguistic vitality and patterns of communication among the second generation of Iranian immigrants in Sweden.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Sociology of Language*, 128, 35-60.
- Stagich, T. (1998). Cultural context and meaning in foreign language learning. *General Linguistics*, 36(1-2), 7-79.
- Tremblay, P. F., Goldberg, M. P. & Gardner, R. C. (1995). Trait and state motivation and the acquisition of Hebrew vocabulary. *Canadian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 27(3), 356-370.
- Underhill, N. (1987). *Testing Spoken Language: A Handbook of Oral Testing Techniqu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최진숙

612-743 부산시 해운대구

영산대학교 한국비즈니스학과

Tel: 051)540-7092

E-mail: jinachoi1@naver.com

Received on February 2, 2015

Revised version received on May 3, 2015

Accepted on June 25, 2015